

2017년 5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7.5.26(금) 14:00~15:00

■ 주요 회의 내용

▲ 보도 경쟁력 확보하고 취재영상 개선 필요

- 연합뉴스TV가 대선 보도 과정에서 이슈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 뉴스전문채널로서 탄핵 국면과 이어진 대선 과정에서 독보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됨(이재경 위원)
- 시청자 참여가 좀 더 확대되면 좋을 것으로 보임. 가끔 사건사고 시 주민이나 목격자들을 전화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청자 제보 영상이나 뉴스, 제작물 등에 시청자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청률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주철환 위원)
- 투표 당일 출구조사가 나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판단된 직후 문 후보가 당사로 가는 것을 타사는 계속 따라가며 중계하는데, 연합뉴스TV는 미처 그러지 못했음. 당사에서 인사 마치고 귀가할 때에는 동행 취재해 보기 좋았음. 대통령특사 관련 영상 중 조윤제 EU 특사의 경우는 직접 카메라기자가 찍은 영상이 아니어서인지 해상도가 너무 떨어졌음(김용직 위원)

▲ 뉴스제목과 속보자막 및 화면구성 등 개선 필요

- 리포트나 단신 제목에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사람을 직위 등 표시 않고 그냥 내보내는 것은 개선이 필요해 보임. 예를 들어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 관련 보도를 하면서 [북 최선희 "트럼프 만나겠다"]고 했는데, 최선희가 누구인지 모르는 시청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됨(김용직 위원)
- 화면에 사용되는 기사 제목과 자막뉴스에서 인용부호(따옴표)가 많이 사용되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연합뉴스TV는 적지않은 기사의 제목에 따옴표를 사용하고 있음. 주요 취재원이나 뉴스메이커의 발언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의미이겠지만 줄였으면 함. 외국의 경우 BBC나 CNN을 보면 BBC는 거의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CNN은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함. 즉 '인용 보도'가 아니라 BBC나 CNN은 이렇게 보고 있다고 자신들의 시각을 담아 보도하는 것임(이재경 위원)
- 좌측 상단에 돌아가는 자막(좌상 롤링)이 표출되고 있음. 그런데, 광고방송 특히 상조회사나 보험광고처럼 화면 전체에 약관 등이 나올 때나 속보자막과 문자광고가 동시에 나올 경우 화면이 겹쳐 보기에 불편하고 광고주에 대한 도리도 아닌 것 같음. 따라서 화면에 약관 등 안내문자가 많은 광고가 나올 때는 좌상 롤링을 보류하는 방안 검토 필요(신현택 부위원장)

- 트럼프의 대북정책 4대기조 관련 뉴스에서 화면이 내용과 맞지 않아 어색했음. 최대한 기사와 화면이 어울렸으면 함(이태식 위원장)
- '인생 즐기자...카드 사용 사상최대' 라는 제목에서 올해 소비 트렌드로 '올로'(인생 한번뿐)를 소개하며 이게 카드 사용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음. 최근 내수가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혹시나 해외여행을 부추기지 않을까 일부 걱정이 됐음. 뉴스 말미에 국내의 경기 침체도 되돌아 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넣거나 별도로 짚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음(박동민 위원)

▲ 프로그램 제작 편성 제언

- 새 정부에서 대통령이 매일같이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정책의 취지와 이해 당사자의 입장, 전망 등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볼 필요가 있음(박동민 위원)
- 대선 정국 등 정치뉴스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뉴스메이커뿐만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도 담았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듦(이재경 위원)
-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시청자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인데 방영시간이 일반인이 시청하기에 쉽지 않은 때에 편성되어 있음(이재경 위원)
- '옴부즈맨'을 공격적으로 해보라고 권하고 싶음. 프라임 타임에 사계의 권위자를 불러서 열띤 토론이 이뤄지는 '옴부즈맨'이 되도록 해봤으면 함. 그것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동시에 시청자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방식이면 전혀 다른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해 뉴스의 초점이 됐던 인물을 초대하고 동시에 역량있는 앵커를 발견하고 발굴해 진행을 맡겼으면 함(주철환 위원)
- 과거 타사의 '돌발영상'이나 현재 종편의 '썰전'처럼 연합뉴스TV도 대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음. '화제가 없으면 존재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회사 사정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정보·뉴스와 엔터테인먼트·재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했으면 함. 연합뉴스TV에서 나타나는대로 그대로 두가지를 '연합'을 하는 것임(주철환 위원)

▲ 진행자, 특파원 주의사항

- 대통령선거 등 특보 상황이 있을 때 진행자가 평소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가 아니라 일부는 기자로 바뀌곤 하는데 조금 어수선한 느낌. 타사처럼 고정적인 앵커체제로 가는 것이 좋을 듯함(주철환 위원)
- 특파원의 발음과 진행이 빨라 알아듣기 어려웠음. 연령대가 높은 시청자들에게는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이태식 위원장)

▲ 긍정 등 기타의견

- 전반적으로 뉴스 보도가 차분하고 중립적으로 좋다고 생각함. 화면 왼쪽 위에 '문재인 정부 출범' 라는 소제목 아래 세부적인 내용을 적어 주는 것이 좋아 보

- 였음. '기로에 선 북한'이라는 제목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어 산뜻했음(김용직 위원)
- 대선 방송 당시 대선후보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당 관계자들을 불러 또다시 토론하는 모습이 보도채널에서만 가능한 경쟁력 있는 콘텐츠 기획으로 보였음(주철환 위원)
 - 빠르게 뉴스의 현장을 보여줘서 신속한 뉴스채널로서의 강점이 두드러짐(주철환 위원)
 - 비즈톡톡이나 지금여기 등 기획물이 딱딱한 뉴스 속에서 상당히 눈길을 잡아 끄. 분량을 늘리거나 비슷한 기획물을 새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임(주철환 위원)
 - 연합뉴스TV 뉴스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는데 공감함. 뉴스가 좋아졌다는 말은 뉴스에 논란이 없고 뉴스로서 부족한 면이 없을 때, 즉 안정화됐을 때는 말하는데 이번 5월은 대선 방송에서 적용이 잘 되었던 것 같음. '대선상황실'이란 코너를 통해 3월부터 공약 관련 내용을 정리해줘 깔끔했으며 TV토론 후 정치평론가나 5당 인사들이 나와서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이어서 나왔는데 타 방송사에서는 특정 후보에 치우쳐서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연합뉴스TV에서는 형평성을 갖고 보도했음(박정숙 위원)
 -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일반적으로 타 방송에서는 코멘테이터가 많이 나오는데 연합뉴스TV에서는 전문가라고 표현해주어 차별화 되었으며 앵커 멘트에서도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해 설명할 때 '전문가를 모신다'고 표현해 좋았음(박정숙 위원)
 - 녹취를 들려줄 때 음성을 변조하는데 과하게 변조해서 알아듣기 힘들 때가 있음. 적절한 조절이 필요함(박정숙 위원)
 -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게시판에 특정인이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거나 내용도 정제되지 않은 것이 게재돼 있는 경우가 있으니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김상선 위원)
 - 5월초에 서비스를 시작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의 '실시간 채팅방' 역시, 소수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정제되지 않은 단어 사용은 물론 크게 의미가 없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필터링 또는 차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김상선 위원)
- . (끝)